



日 정부, 일본은행에 20조 엔의 금융완화 요구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(BOJ)에 국채 등을 매입하는 자산매입기금을 현재 80조 엔에서 100조 엔으로 20조 엔 확대하는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요구함.

- BOJ는 이달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기금을 5~10조 엔 수준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, 일본 정부가 시장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매입기금 규모를 더 확대한 것으로 보임.
 - 또한 정부는 BOJ가 자산매입기금을 통해 장기국채, 상장지수펀드(ETF), 부동산투자신탁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부양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해석됨.
-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한 금융완화 방안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, 일본 은행법 개정을 통해 총재 해임권을 갖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■ 조지마 고리키(城島光力)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도내용을 부인하였지만,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완화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.

- 일본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인 금융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은행이 소극적인 금융완화 정책으로 일관해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.
 - 또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이외에는 마땅한 경기부양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.
- 일본 금융당국이 금융완화를 실행할 경우 엔화가치는 떨어져 일본 기업의 해외 거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(산케이 외, 10/23)